



14일 오후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 1회말 KIA 선발투수로 등판한 허태기 역투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14일 오후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17 프로야구 두산 대 LG의 경기에서 두산 선발투수 니퍼트가 힘차게 공을 던지고 있다. /연합뉴스

에이스 정면 승부

T 타이거즈 전망대

챔피언스필드에 특급 마운드쇼가 펼쳐진다. 올 시즌 가장 먼저 10승 고지를 밟은 '호랑이 군단'의 허태기와 지난 시즌 MVP 니퍼트(두산)의 리턴매치다.

KIA 타이거즈가 20일 챔피언스필드에서 두산 베어스와 시즌 7차전을 치른다. 야구팬들의 이목이 쏠릴 한 주, 시작부터 화끈하다.

1위 KIA는 지난주 롯데 자이언츠와의 원정 3연전에서 썩없이 3연승을 거두며 분위기를 뒀지만, 주말 안방에서 LG 트윈스에게 위닝 시리즈를 내줬다. 7점의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기록된 역전패로 쓸쓸하

게 마감했던 한주였다.

무서운 기세로 추격해왔던 2위 NC 다이노스가 2연패를 기록하면서 1.5게임 차 1위 자리를 지켰다. 그러나 이번 주 일정이 만만치 않다. 주중 두산과의 홈경기를 치르는 KIA는 주말에는 마산으로 건너가 NC와 대결을 한다.

2·3위 팀과의 험난한 일정. 올 시즌 두 팀과의 상대전적도 좋지 않다. 3위 두산에는 2승4패로 유일한 열세, NC와는 3승3패다. 험난한 한 주는 시작부터 허태기와 니퍼트의 '마운드 빅뱅'이다.

두 사람은 지난 4월13일 KBO무대에서 처음 맞대결을 벌였다. 이 경기는 지난해 맞대결 기록이 없던 허태기의 첫 두산전 등판이기도 했다.

이 경기의 승자는 허태기였다. 두 사람은

KIA, 주중 홈서 두산전...주말 NC 원정

10승 허태기, 전 MVP 니퍼트와 재격돌

시즌 2승4패 열세 딛고 1위 사수 특명

이날 7이닝을 소화하면서 선발 역할을 완수했다.

하지만 허태기가 7이닝 8피안타 1볼넷 3탈삼진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투수가 됐고, 니퍼트는 7이닝 6피안타 3볼넷 5탈삼진 3실점으로 패전투수가 됐다.

허태기는 지난 14일 롯데와의 경기까지 무패행진을 이어가면서 가장 먼저 10승 고지를 밟았다.

두산전에는 올 시즌 두 차례 등판했다. 4월 13일 이후 5월 19일 홈경기에서 다시

한번 등판, 7이닝 7피안타 2볼넷 5탈삼진 2실점을 기록했다. 하지만 6~2로 앞선 9회 마무리 임창용을 시작으로 불펜의 불소가 펼쳐지면서 6~7로 자신의 승리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허태기와 맞대결에서 패전투수가 됐던 니퍼트는 5월 21일에는 KIA 김진우와 상대해 승리투수가 됐다. 6이닝 동안 9개의 탈삼진을 뽑아내며 2실점으로 선전했다.

다시 만나게 된 두 사람은 분위기 '반전'과 '살리기'라는 다른 목표를 놓고 마운드

■ KBO리그 순위

순위	팀명	경기	승	무	패	승률	게임차
1	KIA	67	43	0	24	0.642	0.0
2	NC	67	41	1	25	0.621	1.5
3	두산	65	35	1	29	0.547	6.5
4	LG	65	35	0	30	0.538	7.0
5	SK	67	35	1	31	0.530	7.5
6	넥센	67	34	1	32	0.515	8.5
7	롯데	66	29	0	37	0.439	13.5
8	한화	66	28	0	38	0.424	14.5
9	kt	67	25	0	42	0.373	18.0
10	삼성	67	24	2	41	0.369	18.0

에 오른다. KIA의 충격적인 역전패가 기록됐던 18일, 두산은 기적 같은 뒤집기쇼로 NC를 상대로 2연승을 달렸다.

험난할 한 주 화력의 키는 4번과 5번이

주고 있다. 상대 배터리와 견제 속에 '4번 타자' 최형우의 폭발력이 떨어진 모습이다. 지난주 6경기에서 7개의 안타를 뽑은 최형우는 볼넷도 7개를 기록했다. 덩달아 한방 기세도 잠잠하다. 지난달 9개의 홈런을 쏘아 올렸던 최형우는 6월 들어 1개의 홈런 밖에 더하지 못했다.

최형우를 피해가면서 5번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안치홍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안치홍은 지난주 6경기에서 결승홈런 포함 21타수 10안타, 0.476의 타율을 기록하며 제 몫을 해냈다. 하지만 올 시즌 타격 기록이 심하다는 게 고민이다.

허태기로 문을 열고 마무리를 하게 될 한 주. 허태기의 무패행진과 KIA의 1위 질주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류현진 vs 마에다 LA 선발 경쟁 3R...승자는?

류현진(30·로스앤젤레스 다저스)과 마에다 겐타(29)의 선발진 잔류 경쟁이 3라운드 돌입했다.

류현진과 마에다는 18일(한국시간)과 19일 신시내티 레즈와 방문경기에 나란히 등판해 모두 승리투수가 됐다.

류현진은 5이닝 8피안타 2실점, 마에다는 5이닝 3피안타 1실점이다.

데이브 로버츠 감독의 반응은 엇갈렸다. 로버츠 감독은 18일 경기가 끝난 뒤에는 류현진이 3회 무사 만루에 몰리자 교체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19일 마에다의 투구를 높고 "스트라이크 존을 공격적으로 공략하라는 주문을 잘 따라왔다"

1·2R '1승1패'...6월 류현진 주춤·마에다 선전

고 호평했다.

류현진과 마에다는 현재 선발 로테이션 마지막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류현진의 시즌 성적은 3승 6패 1세이브 평균자책점 4.35, 마에다는 5승 3패 1세이브 평균자책점 4.70이다.

시즌 성적만 놓고 본다면 둘의 우열을 가리기 힘들지만, 최근 분위기는 마에다가 조금 앞선다.

류현진과 마에다 모두 선발투수로 시즌을 맞이했다. 둘 다 기대에 못 미치면서 류현진이 먼저 불펜으로 밀렸다. '선발 경

쟁' 1라운드에서 로버츠 감독이 마에다의 손을 들어 준 셈이다.

절치부심한 류현진은 불펜으로 한 차례 등판하며 컨디션을 되찾았다. 지난달 26일 세인트루이스전에서 6회 등판해 4이닝을 2피안타 무실점으로 깔끔하게 틀어막고 메이저리그 첫 세이브를 챙겼다. 마침 그날 선발이 5이닝 3실점으로 불안했던 마에다라 둘 사이의 활약이 극명하게 대비됐다.

결국, 류현진은 1일 세인트루이스전을 통해 선발 로테이션에 복귀하면서 마에

다가 탈락했다. 2라운드 승자가 류현진인 듯 순간이다.

6월 들어 류현진과 마에다는 치열하게 '3라운드'를 벌이고 있다.

류현진은 6월 3경기에서 16이닝을 소화, 1승 1패 평균자책점 5.63으로 다소 주춤하다. 반면 마에다는 10일 신시내티전 4이닝 1실점 세이브에 이어 이날 승리를 포함, 6월 2경기에서 1승 1패 평균자책점 2.00이다.

아직 류현진과 마에다의 다음 등판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 이번 시즌 다저스는 류현진과 마에다에게 '선의의 경쟁'을 계속해서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KIA 최형우 올스타 팬투표 2주 연속 1위

KIA 타이거즈의 '4번 타자' 최형우가 올스타 팬투표 중간집계에서 2주 연속 최다 득표 1위에 올랐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19일 발표한 2차 중간 집계 결과 나눔 올스타의 외야수 최형우는 75만8494표를 얻어 1차 집계에서 이어 최다 득표 선두 자리를 지켰다.

최다 득표 2위는 선발투수 부문의 KIA 양현종으로 71만7174표를 얻었다. 최다 득표 3위는 70만3797표를 얻은 드림 올스타 3루수 부문의 최정(SK)이다.

나눔 올스타는 KIA와 함께 NC 다이노스, 넥센 히어로즈, LG 트윈스, 한화 이글스 선수들로 구성됐다. 드림 올스타는 두산 베어스, SK 와이번스, 롯데 자이언츠, 삼성 라이온즈, kt wiz 선수들로 이뤄진

다. '바람의 손자' 이정후(넥센)는 나눔 올스타 외야수 부문 2위에 이름을 올리며, 지난 2009년 안치홍(KIA)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고클업 신인 베스트 선정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편 KIA에서는 최형우, 양현종과 함께 김윤동(중간투수), 김민식(포수), 안치홍(2루수), 이범호(3루수), 김선빈(유격수), 비나디나(외야수) 등 8명이 1위 질주를 하고 있다.

최종 결과는 팬 투표와 선수단 투표수를 환산해 7대3 비율로 합산, 오는 7월 3일 공개한다. 선수단 투표는 6월 21일 챔피언스 필드 등 전국 5개 경기장에서 진행된다.

/김여울기자 wool@r

스포츠 종목에서 남녀 선수에 대한 상금 격차가 줄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축구와 골프는 여전히 남녀 선수의 상금 차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19일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 남녀 선수의 상금 격차가 크게 좁혀졌다"며 "44개 종목 가운데 35개 종목이 남녀 선수에게 똑같은 상금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다.

2014년에 이어 3년 만에 두 번째로 남녀 선수 상금 격차 조사가 나선 BBC는 68개 스포츠 종목 연맹과 접촉해 55개 국제스포츠 연맹으로부터 답변서를 받았다. 이 결과 83%의 스포츠 종목이 남녀 선수에게 똑같은 상금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녀 선수의 '상금 평등'을 가장 잘 실

축구·골프 남녀 상금차이 심하네

EPL 우승 첼시 550억원...女축구 우승엔 0원

골프 디오픈·US오픈 우승 상금도 '두 배 차이'

전하는 스포츠는 테니스였다. 테니스는 '전설' 빌리진 킹을 포함한 9명의 여성 선수들이 남녀 선수 상금 차별 금지 캠페인을 벌이면서 1973년 US 오픈 대회부터 남녀 선수에 대한 상금 차별을 없앴다.

테니스의 뒤를 이어 볼링, 스케이팅, 마라톤, 사격, 배구, 스쿼시, 서핑 등이 남녀 선수에게 똑같은 상금을 주고 있다. 반면 축구는 남녀 선수에 대한 상금 차이가 가장 큰 종목으로 조사됐다.

2016~2017 시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우승한 첼시는 3800만 파운드(약 550억원)의 상금을 받았지만, 잉글랜드축구협회(FA) 여자축구리그(WSL)는 아예 우승상금 자체가 없다.

2016~2017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팀인 레알 마드리드도 1350만 파운드(약 195억원)의 상금을 챙겼지만 2016~2016 UEFA 여자 챔피언스리그에서 정상을 차지한 올랭피크 리

옹은 21만9920 파운드(약 3억2000만원)의 상금에 그쳐 무려 61배 차이가 났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주관하는 월드컵 역시 남자는 3500만 파운드(약 5005억원)의 상금이 걸려있다. 반면 여자 월드컵 우승상금은 200만 파운드(약 29억원)에 그쳤다.

골프도 남녀 간 상금 차이가 여전히 크다. BBC는 "여자 골프 선수들이 다른 종목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상금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메이저 대회에서는 남자 선수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디오픈의 남자 선수 우승상금은 117만 파운드(약 17억원)이지만 여자 선수의 우승상금은 48만7000파운드(약 7억원)에 그쳤다. US 오픈 역시 여자 선수(90만 파운드)보다 남자 선수(180만 파운드)의 상금이 두 배나 높았다. /연합뉴스

K리그 클래식 내달부터 비디오판독

프로축구 K리그에 내달부터 비디오 판독(VAR·Video Assistant Referees)이 도입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부 리그인 K리그 클래식에서 내달 1일 18라운드 이후 모든 경기에 VAR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K리그의 경우 당초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전반기 오심 논란이 잇따라져 앞당겨 도입하게 됐다.

연맹은 기반 상황이 갖춰지는 대로 2부 리그인 챌린지리그까지 VAR 도입을 확대할 방침이다.

연맹은 VAR 도입을 앞두고 이론 교육과 실기 훈련, 온·오프라인 테스트를 거쳤으며, 이달 들어 감독, 해설자, 미디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그라운드의 심판들이 보지 못하는 사각

지대를 없애고, 오심을 피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VAR은 지난해 3월 축구 규칙을 관장하는 국제축구평의회(IFAB)의 승인을 받은 후 같은 해 12월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 월드컵부터 시범 운영됐다.

경기장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가 전송하는 영상을 별도로 마련된 영상판독실에서 영상판독심판과 부심 등이 모니터한다. 모든 판정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득점 장면, 페널티킥 선언, 레드카드에 따른 퇴장 상황, 다른 선수에게 카드를 주는 징계처리 오류 상황 등 4가지 경우에만 적용된다.

비디오 판독은 최근 국내에서 열린 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에서도 이미 상당한 영향력을 과시했다. 16번 비디오 판독이 진행돼 이 가운데 12차례나 판정이 뒤집혔다. /연합뉴스